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45호
3월 30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한기총, ‘원로·자문위원회’ 출범

국가와 교회의 초유의 위기 앞 기독교 원로 지도자들 나섰다
위원장 정서영 목사, 고문 조용목 목사 등 10명의 위원 위촉

갈수록 고조되는 국가와 교회의 초유의 위기 앞 에 기독교 원로 지도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난 시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 었던 경험으로 시대의 재도약을 위한 실재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혼란을 거듭하는 한국교회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3월 18일(월), 안양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 용목 목사)에서 ‘한기총 원로·자문위원회(위원장 정서영 목사)’를 공식 발족했다.

한기총 명예회장·공동회장 중에서 선임된 본 위 원회에는 명예회장 조용목 목사(예하성)를 위시하여 김용도 목사(명예회장, 기침), 이승렬 목사(명예회장, 개혁총회), 윤항기 목사(명예회장, 예음총회), 박홍자 장로(명예회장, 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 박승주 목사 (명예회장, 한기부), 고경환 목사(공동회장, 한국선교회), 정학재 목사(공동회장, 예장개혁), 이현숙 목사 (공동회장, 개혁) 등이 위촉됐다. 한기총 정관에 따라 위원장을 맡은 정서영 대표회장은 위원들에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기총 원로·자문위원회는 국가와 교회의 당면 과제 해결과 한국기독교의 발전, 그리고 한기총 제2 의 도약과 부흥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국가와 교 회의 회복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기총의 역할을 제



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표회장 정서영牧사는 지난 2년새 두드러진 한 기총 정상화의 의미와 향후 목표에 대한 분명한 지향 점을 제시했다. 극도의 혼란을 겪었던 지난 암흑기를 언급한 정 목사는 “과거의 아픔은 미래의 건강을 위 한 예방주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대표회 장이 되고 한기총이 전혀 다른 단계로 변화했다. 다 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 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한기총이 보수신학의 정체 성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목사는 “한국의 보수신학은 점차 자유주의화 되고 있는 세계교회에 있어 귀중한 보물과 같다”고 전제한 뒤 “지금 한국에 보수라 말하는 곳이 많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체성을 가진 곳은 많

지 않다. 한기총이 보수연합단체로의 분명한 정 체성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정 목사는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로 이끌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섞여 성명서 하나 제대 로 못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국 교회의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한기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은 정서영 대표회장 체제 에서 한기총이 상당한 회복을 이뤘음을 보고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기총은 지난 회기 산하 위 원회가 약 50여 차례 진행되며, 교계 내외의 각종 사 회적 이슈에 한기총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 히 연말 한국교회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 며, 한기총의 위상이 급속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역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아직 이 루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방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특별히 이날 한기총 원로·자문위원회에는 조용 목 목사가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교회 보수 신학 수호에 크게 앞장서 온 조 목사는 한기총 정상 화를 위한 정서영 대표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특별 히 고문 자리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배에서 조용목 목사는 설교를 통해 ‘거 룩’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상실할 때 하 나님의 징벌이 임했듯 한기총은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 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의현 목사, 윤항기 목사, 정학재 목사, 박승주 목사, 이현숙 목사, 김정환 목사, 박홍자 장로, 김용도 목사, 조용목 목사, 정서영 목사, 이승렬 목사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개최

4.10선거 수개표로 부정차단,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도발 중단 촉구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 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금)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 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 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 주지방회장 윤병하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 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12:1-2말씀을 본문으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 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 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회 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병목 목사 주재로 열려 실행위원회의 안건을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하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한국교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한국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자 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중차대한 순간을 맞이하

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 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 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공정한 선거관리와 부 정선거 방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들은 이어 김제임스 성경만이 영감된 성경이 며 여타의 성경은 모두 마귀가 변개하고 오염시킨 것 이라고 가르치는 자의 실상을 파헤친 자료영상을 시 청했다.

실행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4.10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수 개표, 사전선거 후 경비관리와 철저한 공개 등을 요 구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 고,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원칙과 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엡 6:24)



조용목 목사

사람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 칙이란 근본이 되어 두루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삶 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일관성 있게 처신할 수 없습 니다. 원칙이란 배의 돛과 노 혹은 스크루와 키 같은 것입니다. 돛이나 노 혹은 스크루나 키가 없는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소신이란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대 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신껏 행한다는 것 은 쫓대를 가지고 당당히 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 다.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남의 말에 동요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꿋꿋이 가지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며 섬긴다는 원칙입 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선악 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 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 됨으로 더욱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대원칙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 나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합당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 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걸출한 인물입 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가 가 진 원칙은 요지부동이지만 그 원칙에 합당하게 소 신껏 행동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 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원칙에는 변함 이 없었으나 우상숭배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를 죽 이겠다는 왕후 이세벨의 통첩을 받아 황망하게 브 엘세바까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 으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소신껏 행동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 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삼대 호칭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입니다. 그 중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 신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사 용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 시고 이를 이루시는 구원자로 거의 모든 언약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에 관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 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으 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라고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 나님이시요 아버지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시며”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 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 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 도의 하나님이여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대원칙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원칙과 소신 은 이런 대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 한 원칙에 굳게 서서 매사에 소신껏 처신하시기 바 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충남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3월 19일(화) 다시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표 결을 실시해 재서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만장일치 가결 됐다.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의 분 포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들 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

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 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 난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 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 한 바 있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지난 2월 재투표에 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교육청은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의사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대한기독교노인회, 의료 사태에 대한 성명 발표



정서영 목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사 선생님들

께 호소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능력을 집단행동이 아닌 사람 살리는 일에 써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300만 기독교인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 환자를 살린다는 초심을 떠나서는 그 어떤 주장도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를 위한

현신과 사랑으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건강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한기독교노인회는 국내외 한국인 기독교 단체와 노인들이 서로 협력해 기독교 노인들의 권의 신장과 복지 증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사회통합 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 민관 협력방안’ 고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서울시장과 저출산 극복 논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출대본)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청 집무실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에 관해 고민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도시 내 여유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서울시도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와 사단법인 간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경철 본부장은 현재 서울 시내 5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

성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초저출생 극복 캠페인에 대한 협력도 제안했다.

출대본 정책위장 장현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여야 정책의장에게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 전달과, 영유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활용을 위한 문샷밥안 및 정책을 제안했다”며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급히 종교시설을 통한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 협의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밖에도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출생든든한 미래)은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원인과 정책에 관한 정책자료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했다.

한남대, 한·일 기독교공조회 수련회 개최

‘한·일 간 진정한 화해’ 주제로 진행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와 한남대세교회가 공동으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일본의 ‘기독교 공조회’가 방문했다. 지난 3월 18일(월)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한·일 간 화해를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대전지역 관내 방문 및 역사적 장소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일본 이이치마 마코토 목사와 한남대 교수 판노열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이치마 목사는 ‘한·일 수련회 개최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가해자의 편에 선 일본인이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화해를 이끄는 만남으로 다져가야 한다”며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일 간의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 현실에 대해 역사 수정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우리 공조회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외에 자유독립’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고 전했다.

수련회의 둘째 날에는 고철웅 한남대 법학



부 조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일본 측에서는 카타야나기 에이이치 교수가 응답했다. 한남대 일본과 배정열 교수는 “대치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종교를 시작으로 화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

이었다”며 “한·일기독교공조회가 한·일 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 공조회는 19일 한남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세미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대상 이단 명단과 추천 선교단체

학원복음화협, 새학기 대학교 캠퍼스 이단경계주의보 발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금 대학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이단 단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단경계주의보가 발령됐다.

학원복음화협회(이하 학복협)는 2월21일 ‘2024년 새학기 이단경계와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 추천’ 공문을 통해 이단의 활동 방식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캠퍼스 이단은 새내기들에게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접근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하거나 새내기들의 클럽에 교묘하게 접근하기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학복협은 주목해야 할 이단으로 IYF와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통일교 등을

지목했다.

(사)국제청소년연합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는 ‘굿뉴스코’, ‘기쁜소식 선교회’, ‘기쁜소식강남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등의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IYF는 구원파라 불리는 집단 중 박옥수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다. 죄 사함과 거듭남,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해외자원봉사, 귀국발표회, 글로벌캠프, 국제문화박람회 뿐만 아니라 뮤지컬,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막기춤, 맘소리, 맘오니 등 육아 커뮤니티를 활용해 포교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신천지는 선교단체와 일반교회에 위장 잠입하여 활동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잘 알려진 교회나 선교단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성경공부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설문조사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으로 미혹한다.

관련 기관으로는 (사)만남, 천지일보, IWPG, She Can, UNPO, 강계개종파해자연대 등이 있다.

주로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미끼로 신입생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설문에 응한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후 성경공부로 인도하여 신천지 교리 교육을 시킨다. 주로 진로 상담이나 멘토로 접근하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 돌보시는 감동의 일정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 장흥에서 큰 격려 얻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창조섭리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제4차 국토순례 일정이 3월 4일(월) 전남 진도에서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을 드림으로 출발한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는 해남, 강진을 지나 3월 9일(토) 장흥에 다다랐다.

순례단을 환영하지 않았던 강진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흥에서 더 큰 격려와 보람을 얻게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하셨다. 국토순례 현장에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실시간으로 매일매일의 일정과 상황들을 보고하며 중보기도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특별히 장흥에 다다른 홍 목사는 “장흥중앙교회 이준호 목사님 새벽성경과 다니엘학교 학생들 20명이 장흥 선포식과 국토순례에



참가하여 그중 12명이 완주했다”면서 감동을 전했다.

나이가 ‘국토순례 후 늦은 오후에 다니엘학교를 방문했으며,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에 방문동반부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중독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귀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며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걷고 있는 국토순례단은 다니엘학교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교정교화 사업 환경의 질 향상 위해 노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쿠팡출판사 이형규 대표가 15년째 회장으로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형규 쿠팡출판사 대표)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3일(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소장 감사패, 중앙회장 표창패, 연합회장 표창패 등의 유공위원 표창과 함께 2024년 사업계획과 기타 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다.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 교정위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기로 다짐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위원들이 봉사 현장에서 우수한 역량을 펼쳐서 교정교화 사업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마음을 모았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을 위한 자선봉사 단체로서 사랑의 집결지다 행사 지원, 수용자 명절 특식 지원, 보라미 봉사활동 행사 지원, 멘토링데이, 다과 지원, 기타 교화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리더십 교육

글로벌선진교육 · 글로벌선진학교 김지연 약사 등 강의

기독교 사학에 대한 정체성을 흐드는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기독교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독교 사학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있어 화제다.

사단법인 글로벌선진교육 · 글로벌선진학교 공동체(이하 선진학교)가 오는 4월 2일(화), 음성캠퍼스(오전 10:30), 문경캠퍼스(오

후 3시)에서 한국교회 교육리더십(목회자, 직분자)을 초청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그들을 인재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과 급속한 세속화로 인한 다음세대의 교회 이탈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

간에는 청소년 복음화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하며 선교대상화(宣敎對象化) 되었다고 염려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젊은 세대의 육아(育兒), 교육(教育), 주거(住居)문제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基因)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은 공공교육의 비성경적 가치교육이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년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교육선교에 매진해 온 선진학교는 한국교회 교육 리더십들을 초대하여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전략을 논의하게 될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리더십/목회대태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미래와 다음세대 양성 전략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ALAF(Awe some Life Awesome Family) 대표인 김지연 약사가 ‘현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비성경적 가치관과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게 된다.



에티오피아 위한 ‘도시락을 부탁해’ 진행

한국컴패션, 현지 190개 어린이센터 통해 긴급 식량 지원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3월 20일(수)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에티오피아 식량지원 프로젝트 ‘도시락을 부탁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뭄과 분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

아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식량 안보 정보 네트워크(FSN)가 발행한 ‘2022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북부 일부 지역 가구의 60~80%는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식량지원 프로젝트 후원금은 에티오피아 아파라 주, 오로미아 주, 감벨라 주, 남부국가민족 주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190개 컴패션 어린이센터에서 양육 받는 22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컴패션은 어린이가 가정에 필요한 곡물과 식용유 등 긴급 식량과 어린이들을 위한 점심 도시락,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컴패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도시락 보내기’, ‘한번 도시락 보내기’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2만원 이상 정기 후원자 및 10만원 이상 일시 후원자들에게 라면락 도시락과 파우치 등 리워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컴패션 후원기업인 크레이지카즈(합정분점)의 ‘착한 메뉴’를 통해서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착한 메뉴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에티오피아 식량 위기 캠페인에 후원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식량지원 프로젝트
도시락을 부탁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보내주세요!

■ 생명의 말씀 ■



백영자 목사

- 교단 재무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창 1:26-28). 흠으로 만든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창 2:7). 사람이 죽어 영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 육체는 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창 3:19,50). 부활은 사람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육체가 변화됩니다(50절).

첫째, 부활하면 썩지 않는 육체가 됩니다(43, 5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위해서는 흠으로 육체를 만드셨고(창 2:6), 예수님을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잉태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마 1:20).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행 1:9).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

사람의 육체도 영원히 살기위해서 영원

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지만 천국에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50절).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 있는 동안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왕하 2:11)고 기록되었습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혈과 육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것은 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썩은 것은 영원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면 썩은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면 썩어질 육체가 당하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썩은 육체가 썩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하면 죽지 않는 육체가 됩

니다(53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의인이 부활하면 영원한 의인이 되고, 죄인으로 부활하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던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었습니다(요 11:4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0-53).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칠 때에도 극히 큰 군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겔 37:10).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습니다. 부활하면 죽을 육체가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

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고전 15:19-21)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면 죽을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셋째,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49절)

한번 부활하면 썩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골 12:1-2).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막 9:47-49)고 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철학자 니체는 ‘자기 생애를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외쳤습니다. 신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으니 인생을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27)고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몸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살전 4:16).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백석문화대 산학우수교원 표창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송기신)는 지난 3월 19일(화)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산학협력 우수 교원 및 산업체 인사' 대상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 활동에서 우수한 결과로 산학 협력 역량 강화 및 활동 성과를 위해 공헌한 교원, 산업체 인사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종아동찾기협회, MOU 체결



미 채플린협회 (대표 김다니엘 목사)가 지난 3월 19일(화) 서울 양천구 은행로에 위치한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사무실에서 MOU를 맺고 국내 아동들의 인권 회복과 미아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실종아동찾기협회(대표 서기원)의 사역에 함께하기로 했다.

배우 하정우 성경 필사에 열심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여전히 성경 필사에 열심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하정우는 지난 2022년 “한동안 성경을 필사하며 배우 하정우를 내려놓고 인간 김성훈을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한 배우 하정우는 시집 식구인 하정우가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우, گیا대책 고액후원자 회원



국내 최초의 국제 구호개발 NGO 희망 친구 گیا대책(회장 유원식)은 گیا대책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태우를 고액 후원자 모임 ‘필란트로피클럽’의 346호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3월 21일(목) 밝혔다. 배우 정태우는 지난 1999년 ‘기아대책 1호 홍보대사’인 배우 임동진 씨의 소개로 최연소 홍보대사에 위촉되며 گیا대책과 첫 인연을 맺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속히 석방하라

지난 11일 러시아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한국인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하여,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하고, 그리고 3월 11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러시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하여 소위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된 선교사는 러시아 내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들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인권 탄압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첩혐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억측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서로의 무기 거래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하더라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구금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

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붙잡아 억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쟁 중에도 인도적 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당국의 독재와 그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속히 한국 선교사를 돌려보내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또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군인들에게
기독교 영상 콘텐츠 제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라잇나우미디어

크리스천 군인들에게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라잇나우미디어가 3월 25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일에 군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줄어가는 반면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신앙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1972년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전도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군선교연합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라잇나우미디어는 기독교 교육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전문 강연, 말씀 강해 및 주제별 소그룹 스터디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군선교연합회는 군교회와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복음을 위해 라잇나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라잇나우미디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군선교연합회의 활동을 돕고 검증된 양질의 미디어를 통해 군인들의 영적 성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 부산동지방회 연합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 두 지방회가 하나의 지방회로 연합하여 아래와 같이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일시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2번길 16

(051)623-0295, 010-3590-3156

설교

총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
순복음세움교회

부산동지방회장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목회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3월 7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참좋은교회(담임 박영욱 목사)에서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 연합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재무 안병석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사 40:1~11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 목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황연선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박영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회무처리를 통해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그간의 부산동지방회의 모든 회무를 마무리하며 남은 금액은 부산지방회로 이월

하는것으로 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박영욱 목사의 웅송한 대접과 근처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부산지방회와 연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방회원들은 연합예배 때 만날 것을 약속 한 뒤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부산·부산동지방회 통합 전 결산지방회 개최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부산동지방회와 통합 정기지방회를 앞두고 지난 3월 18일(월) 오후 12시 세움교회 청도수양관에서 부산지방회 결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영국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최계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5:18~21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8년을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통합 후에는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의로 가득한 지방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했다.



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계 서미곤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고영권 목사의 축하 인사, 전임지방회장 조병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원들은 세움교회에서 준비한 숯불 쇠고기와 전복 구이와 장어구이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수양관에서 봄을 느끼며 사진도 찍고 뱃놀이로 에구마를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부산으로 출발하는 길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커피숍에 들러 다과를 나누고 4월 2일 통합정기지방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73차 정기지방회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3월 18일(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순복음광양교회에서 73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빌 3:17-21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전라지방회 교역자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대한민국과 복음통일을 위해,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정책위원들을 위



해,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전임회장 최남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회원점명과 총무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이어서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지방회장의 보고를 통해 영적, 안보적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지방회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지난

회기 결의한 대로 현 임원진(회장 백영자, 총무 유용근, 서기회계 이태우)이 유임되었고, 총회 참석을 위한 준비와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이후 재논의하며 실행할 것을 결의하며, 전임회장 김갑신 목사의 기도로 73차 정기지방회의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후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와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나누고 더욱 하나되어 교단을 위해 섬기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기지방회 열고 지방회 새 임원 선출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지난 3월 18일(월) 행복한순복음교회(담임 윤철희 목사)에서 제33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산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전임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교단 부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2: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성 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허만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고 기쁨으로 새임원들을 응원했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차를 마시며 대구대학교 안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했다. 풍경을 구경하며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눈 후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월례회 갖고 목회자를 위한 특별 강의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2월 18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행복한국교회(담임 김병호 목사)에서 2024년 첫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전임회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바쁜 일정들을 뒤로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드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 부회장 안재봉 목사(비전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10:20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목회자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회 재무 및 회계 김경순 목사(순복음화목한국교회)의 헌금기도 후 예배를 마치고, 김중구 박사가 진행하는 '사군자 기질 강의'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군자 기질 강의'는 말은 양무리들의 기질을 올바르게 알아 목양에 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성경인물 및 나타난 기질에 따른 반응과 적용에 대해 설명해 참석한 지방회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순복음행복한국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갈비뷔페로 풍성하고 맛있게 저녁식사를 한 후 지방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기지방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뜨겁게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3월 12일(화) 예수온선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열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응진,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오세준 목사의 대표기도, 강인덕 목사의 시 24:7-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한배 목사의 헌금기도, 탁정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진행으로 회원점명, 행사보고와 총무 및 서기보고, 재무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또, 21차 임원은 회장 문찬우 목사(예수온선교회)가 연임하고 총무는 전한배 목사(서광중앙교회), 재정은 박태곤 목사(순복음하늘샘교회)가 맡기로 결의했다.

천년초의 효능

-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냄)
-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오직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필리핀지방회 32차 정기지방회, 필리핀선교 50주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 격려사



필리핀지방회장 이요셉 선교사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맞아 위로와 격려 부흥과 열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선교사들의 화합의 잔치로 열린 이번 정기지방회는 필리핀 제1의 휴양도시 세부에서 3박 4일 간의 여정을 펼쳤다.

필리핀지방회 회원들과 전임 총회장 배진기 목사와 김인찬 목사를 비롯 교단 북한 선교위원장 오승욱 목사,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 전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 교단 청년국장 부흥사회 총무 오세준 목사, 목양신문 박한근 목사 등 3십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마젤란기념호텔 1521호실에서 열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여 일어나라’ (사 60:1)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필리핀지방회장 이요셉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도식 선교사의 기도, 예하성 교단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교단 서기, 순복음아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형순 목사는 롬 8:35-39 말씀을 본문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

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다.

이어 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시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다. 끝까지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필리핀 선교지 교회들이 될 줄로 믿는다고 강조하고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교단 북한선교위원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축사, 교단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포항안디옥교회)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축사를 통해 개척자와 같은 선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배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필리핀선교 50주년을 맞아 필리핀지방회 가족수양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구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당부했다. 전임 교단 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축사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후에 열린 정기지방회에서는 지방회장 이요셉 선교사 주재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31차 임원진은 회장에 이요셉 선교사, 부회장에 이도식 선교사를 총무에 이종숙 선교사를 선임했다.

필리핀지방회는 선교 50주년을 맞아 전 회원들과 함께 3박 4일간 개회예배와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선교사들은 고온 다습

한 아열대 기후의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휴양지를 다녀볼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와 안디옥교회의 후원으로 세부의 유명휴양지와 바닷가에서 회원,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필리핀 선교사들은 아열대지역의 고온다습한 낮선 환경 속에서도 힘들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필리핀선교와 필리핀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



설교말씀을 전하는 교단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



진등용 목사
전)예하성총회장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
교회사연구소장

상임회장



김응규 도의원
전) 아산시의회의장

실무회장



홍석용 목사
전) 아기연대표회장

사무총장



이정팔 목사
성시화운동본부장

교회



김소윤 목사
전)기감감독



신상우 목사
전)나성감독



김원진 목사
전)개척총회장



임용석 목사
전)개척총회장



정병한 목사
아기연 대표회장



이승수 목사
전) 충기연총회장



최규명 목사
전) 아기연대표회장



김수홍 목사
아산경찰서
경목실장



박귀환 목사
아산시기독교연합
봉사회 이사장



김병완 목사
아산시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희중 장로
아산시장로회
대표



박해서 장로
충남평신도
사무총장

기관장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경귀 아산시장
(국민의힘)



이영도 아산경찰서장



박서우 교육장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 감당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기도하고 황토길 트랙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영진 목사
걷기동우회 회장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3월 25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내에 마련된 황토길 트랙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전임 총회장 유봉수 목사를 비롯 5십여 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정영진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묵 목사는 전 12:13,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세히 음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최형택 목사의 헌금기도 후 2부 기도회는 김용덕 목사가 '총회, 교회부흥과 정책위원장님을 위해', 유봉수 목사가 '자유대한민국 안녕과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회장 정영진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를 비



롯 유봉수 목사 외 회원들이 함께 수양관 운동장에 마련된 황토길 트랙을 삼삼오오 모여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회원들은 정책위원장께서 제공한 식사를 함께하고 인근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차를 취향껏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우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 마련된 황토길 트랙을 맨발로 걷고 있다.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 총선 가이드라인 발표

긴급 간담회 열고 결의... 자유 이념 신봉하는 후보 지지할 것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 (약칭 나사연, 대표회장 이상민 목사)이 19일(화) 정오 서울 코리아나호텔 3층 식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이던 지난 2022년 3월 9일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화 위기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출범한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 (약칭 나사연, 대표회장 이상민 목사)이 지난 3월 19일(화) 정오 서울 코리아나호텔 3층 식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 1부 예배는 주요섭 목사(나사연 사무총장)의 사회, 신재영 목사(전 경기기총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심하보 목사는 '다하라' (딤후 4:7-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처럼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대를 깨우는 정의로운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해야 한다"고 역설해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

대표회장 이상민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사무총장 주요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간담회에선 경과보고와 참석 회원들의 인사말, 4.10총선에 대한 전망과 대한민국의 위기 진단, 나사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한국교회에 4.10총선 전 올바른 후보 선출을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담은 '샘플 설교문'을 제공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3월 22일(금) 오전 11시에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SNS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다.

둘째, 총선 1주일 전인 4월 2일(화) 오전 11시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을 신봉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한국교회를 박해할 후보를 걸러내는 가이드라인을 성

명서로 답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신문광고, 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기로 한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나사연 회원은 이상민 목사, 주요섭 목사, 고금순 권사, 심하보 목사, 신재영 목사, 홍영태 목사, 지광선 목사, 박필임 사모, 오호수 집사, 김동구 목사, 노근채 목사, 이우탁 목사, 임재영 목사, 남태섭 목사, 박승환 목사, 서요한 목사, 심동섭 목사, 하숙란 권사, 최명찬 집사 20명이다.

동성 파트너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반대

동반연·진평연 등 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대법원에 원심 파기 촉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에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교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취득 거부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해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 대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했다.

또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우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다. 비록 건강보험법상 '배우자' 의미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각종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법령에서 사실혼을 '배우자'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며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이성 관계를 비롯한 동거관계는 혼인의 실체가 없어 보호가치가 없다고 봤다"며 "따라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1남 1녀라는 결합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다른 동거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입법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 행태"라고 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아동돌봄 정책 제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이사장)는 3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영환)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영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관계자와 소통 중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저출생의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감경철 본부장은 "조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차원의 중

교가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돌봄문제 등 조저출생 문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출대본 정책위원장)은 출대본을 통해 "국회 여야 정책의장에게 <제22대 총선 조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영유아 아동돌봄 정책 분산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며 마지막 골든타임인 지금 저고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은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조저출생의 원인과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자료를 전달했다.



“출산하려면 결혼부터”... 결혼기금 2억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 25일 대학로서 가두서명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준구 장로, 이하 출산본부)가 지난 3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결혼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출산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환 목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해부터 본격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시 전액을 담보해 주는 방안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증명할 시 입양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출산본부는 이런 내용의 입법청원을 위해 100만 서



명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날 가두서명에 나선 것이다.

출산본부장인 김준구 장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줄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장기기증, ‘가정의 달’ 모금함 운영

도너패밀리에게 감사선물과 인사 전해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이사장, 이하 본부)가 지난 2월 28일(수)부터 오는 5월 6일(월)까지 네이버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를 위한 ‘가정의 달’ 모금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뇌사 장기기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기증인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7,394명으로, 이들을 통해 2만 2천여 명의 장기이식 대기환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반면 기증인의 유가족들의 아픔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본부는 2021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도너패밀리를 위한 날인 ‘로즈데이’로 지정하고, 생평나눔을 실천한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로즈데이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빨간 장미와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로 정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데이의 합성어로,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한 뇌사 장기기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도너패밀리에게 위로의 마음이 담긴 감사 선물을 건네고자 본부는 네이버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모금함을 오픈했다. 5월 6일(월)까

지 모인 기부금은 도너패밀리를 위한 가네이션과 편지, 건강식품 구입 및 발송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장기부전 환자들이 오랜 투병 생활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숭고한 결정을 내려 준 도너패밀리에게 존경의 마음을 건넨다.”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생평나눔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와 아동권리’를 주제 아동의 목소리 전해

월드비전 각 정당에 아동의 목소리로 기후변화 정책제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기후변화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를 전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지난 20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김소희 후보와 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로 활동했던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전국 아동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문을 전달했다. 특히 아동들은 '미래 기후 유권자 퀴즈(유퀴즈)'라는 형식으로 기후

변화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마련해 대한민국 아동들의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총선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5개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54명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두 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이날 아동권리대표단이 전달한 정책제안문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열린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지난해 8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가 아동권리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마련됐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 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 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 76조에 의한다.
- 임원 임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임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 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당자는 제출자의 임의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임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임후보 등록 가· 부를 임 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임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 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임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임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임원후보등 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 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 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 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광모임을 주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숙박,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지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 임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임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 임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 | | | |
|----------|-----|---------|
| 2011. 3. | 7. | 제정 |
| 2012. 3. | 5. | 일부 개정 |
| 2012. 4. | 16. | 일부 개정 |
| 2013. 3. | 5. | 교단명칭 변경 |
| 2015. 3. | 3. | 일부 개정 |

1. 등록마감 : 2024. 3. 29(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재영 목사(010-7457-9768)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조길수 목사(010-6646-29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 재 영 서기 목사 조 길 수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거룩한 수난이여

지상의 어두움은 광야의 두려움을 재촉하리.
너 광야여 인생의 목마름을 아골 골짜기로 토해냈던가.
해골의 언덕, 그날따라 몸서리치는 죽음의 축제였기에
아, 스치는 바람도 눈물에 마쳐
차마 나그네 길손 갈 길을 멈추어 섰다.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올라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하셨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아픔이여 온 세상의 아픔이
여라.

아, 해골의 언덕이여 하늘의 통곡 들어보라.
아버지의 가슴 은 지면을 눈물로 적신다.
제 9시 하늘은 차마 그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지상은 홍통으로 대지가 일그러질 때,
천상천하 버티어 내던 진리의 기둥이시여
천동우뢰로 당신의 비통 대신하셨다.

가상칠언이여,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노라.
아, 저 멀리 구슬픈 까마귀는 주검을 노래하고
흑암은 장단????의 참미로 화답하는데,
한 줄기 빛 없는 하늘길 넘어

천상의 슬픔은 온 우주를 덮었다.
절망의 예찬이여, 저주의 화신이어라.
슬픔의 예찬이여, 위선의 화신이어라.
아, 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시라.
독생자의 아들 버리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아, 슬픔의 갈릴리여 잠잠하라.
골고다 주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소자여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리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다.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
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르셨네.

오, 주여! 수난의 극치시여!
나로 오늘을 이기게 하소서.
나로 그리스도의 명예와 주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소서.
주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소서.
자신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오, 거룩한 고난의 아픔이여!
나로 참에게 하사 순결을 회복케 하시며
나로 가난케 하사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나로 나를 비우게 하사 나로 당신의 복음 청지기 되게
하소서.
복음의 청지기 십자가로 수종 들게 하소서.
십자가로 수종 들게 하소서.
수종 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홍종국 목사
(Ph.D. 조직신학교수)
이수 교수
(D.Min. 목회학전공)
가족세트 총괄본부장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는 '인기(popularity)'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연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예인의 외모, 연기 등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몸 값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연예인들이 모든 것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기를 얻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의 언행은 이른바 연출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연출된 모습이 진면목인 줄 착각하고 그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가와 다른 말로 사람들의 '지지(approval)'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여러 단체들을, 국민들을 대신하여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체제입니다. 그 모든 직제나 방법은 법으로 정하여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법치주의체제라고도 부릅니다. 법이 정한 대로 국가의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 대표들의 책임이 클수록 권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나 권세는 자신이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 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로써 국가의 책임자가 정해지는 것은 연예인들의 인기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의 특성 중의 하나는 인기는 구름 또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연출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일들은 우리 대통령이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

연출해 내듯이 연기하는 배우 같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 뒤에서 그 일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제 거의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보다도 연예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연출하여 얻어낸 인기(지지율)는 연기(氣)와 다르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또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잘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당장 얻는 인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항상 여의하지는 못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주역인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은 군중의 지지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지지만이 불변합니다.

우리나라 현 정치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함을 새삼 알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시 11:4)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힌 못처럼
예수님 안에 믿음의 못이
단단히 박혀있는가 확인해 본다.

사망의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

좌-앙 좌-앙 나무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이루신 사랑

그 오랜 세월 지났어도 내 귀에 들리네.

속죄함~ 속죄함~ 알려주는 소리.

내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한 소리.

구속함과 칭의를 이룬 죽음보다 강한 사랑(아 8:6).

잘 박힌 못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깊이 박혔네(사 22:23).

세찬 망치에 박힌 못.. 살 속 깊숙이 파고들 때

죄 사슬에 갇힌 운명 예수 피로 녹여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바꾼 사랑.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내 영혼 살아가네(전 12:11).

사 설

부활의 기쁜 소식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전 15:12,13)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첫 열매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게는 더 이상 죽음이 철천지원수가 아니다. 죽음을 두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겠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국교회 지켜야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통합에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일 정치 지도자가 분열에 앞장선다면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다. 이는 국민을 두 쪽으로 썬 가르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편이 갈라지면 우리나라의 정치란은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죽여야만 속이 시원할 적으로 취급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죽이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게 인간사다. 그래서 상생이 중요하고 원인이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세종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살 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했다. ‘살마 2찍 아니겠지?’라고 말했다가 사과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2번을 찍은 사람이 무려 50%에 달하지만 국민 절반을 이렇게 함부로 비하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해도 상생이 될까? 상생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무시하고 깔아뭉개면서 상생? 무시하면 나도 상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폄하해도 나만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다. 미련한 사람이다. 투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자기 당을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민주당도 문제의식조차도 없다. 공천도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했다. 자신은 형수 상육으로 막말의 대가로 등극했지만 전국을 돌면서 온갖 큰 소리는 다치고 있다. 그래도 개 딸들은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댄다. 막말 일수록 박수가 더 크게 나온다. 결과를 무시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고, 위생정당 금지를 약속하더니 이를 또 혼자서 뒤집었다. 국민들도 어지간히 가스러이팅 됐을까? 약속 뒤집기와 막말, 상육, 궤변에 대해서 관대한 듯하다. 험한 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며칠 전 국민의힘을 향해 ‘폐륜 공천’, ‘친일 공천’, ‘극우 공천’, ‘돈봉투 공천’이라는 말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런 폐륜 정권은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울소를 외치며 박수를 쳐댔다.

발령한 대통령 임기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낯빠진 후보도 있다.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한 언행을 일삼는 해로운 정치인이 세상에 막말을 일삼으로 해낸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를 대신한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회생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회생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4월 10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이런 더러운 말의 심판을 위해서 꼭 4월 10일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확정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